

대입 정시 199개대 18만여명 모집

광주·전남은 20개 대학 9천700여명

2008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광주·전남 20개 4년제 대학이 9천700여 명을 뽑는 등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18만1천14명을 모집한다.

이번 정시 모집인원은 총 모집계획 인원 37만8천268명의 47.9%에 해당돼 수시 모집 인원보다 적으며 지난 해 18만7천325명에 비해선 6천311명 줄었다. <관련기사 11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4년제 대학들의 2008학년도 정시 모집 대학 입학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모집 요강에 따르면 학생부(내신) 실질방법 비율은 50% 이상이 30곳, 50% 미

만~40% 이상 33곳, 40% 미만~30% 이상 128곳, 30% 미만~25% 이상 6곳 등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형 일정=원서 접수 기간은 가

군과 나군, 가/나군 대학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다군과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대학별로 실시된다.

정시모집 군별 현황은 가군 130개 대학, 나군 137개 대학, 다군 135개 대학으로 나누며 각 대학이 군별로 분할 모집하기도 하고 캠퍼스별로 분

리해 모집하기도 한다.

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원서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이 100곳, 인터넷 및 창구접수 병행 대학이 94곳, 창구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은 7곳이며 인터넷 및 창구접수 병행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 및 마감 일자가 다를 수 있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의 경우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이며 나군은 2008년 1월 11일부터 21일, 다군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군별 전형기간 내 모

드 전형이 이뤄지므로 수험생들은 논술 및 필답 고사, 면접·구술, 실기 고사 일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008년 2월1일까

지이고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2008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다.

◇모집 인원=정시 모집 인원은 수시 1학기 및 수시 2학기 모집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현재 수시 2학기 전형이 진행 중이어서 합격자의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별로 입학 원서 접수 전에 각 모집단위의 모집 인원을 변경 공고하게 된다.

군별 모집 인원은 가군이 130개 대학 6만7천76명, 나군이 137개 대학 6만6천216명, 다군이 135개 대학 4만7천677명이다. 대학 설립별 모집 인원은 국립대 대학이 42개 대학 4만8천450명(26.8%), 사립대학이 157개 대학 13만2천546명(73.2%)이다.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일정	
접수일	- 가군, 나군, 가/나군 : 2007.12.20(화) ~ 2008.1.25(일)
접수장소	- 다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 2007.12.24(금) ~ 2008.1.25(일)
전형기간	- 가군 2007.12.27(화) ~ 2008.1.30(일) - 나군 2008.1.15(금) ~ 2008.1.27(일) - 다군 2008.1.22(화) ~ 2008.2.1(일)
합격자 발표	2008.2.1(금)까지 발표 통계기간 2008.2.4(월) ~ 2.7(목) 13일 ※ 실무부 및 공동일 계획

온라인뉴스그룹

날리는 은행잎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주	구름 조금	-1~11°C
포	구름 조금	2~10°C
여수	구름 조금	4~11°C
완도	구름 조금	1~11°C
구례	구름 조금	-4~12°C
해남	구름 조금	-3~11°C
장성	구름 조금	-1~12°C
고성	구름 조금	4~12°C
순천	구름 조금	-2~11°C
영광	구름 조금	1~12°C
진주	구름 조금	-3~10°C
남원	구름 조금	-6~11°C
속신도	구름 조금	6~9°C

서해남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4:17 셀룰 < 17:10

여수 밀물 < 11:40 셀룰 < 22:20

여수 밀물 < 23:40 셀룰 < 17:50

▲해뜸 07:19 ▲해침 17:21 ▲달듬 21:04 ▲달침 11:03

◇주간날씨

날짜 29(목) 30(금) 1(토) 2(일) 3(월) 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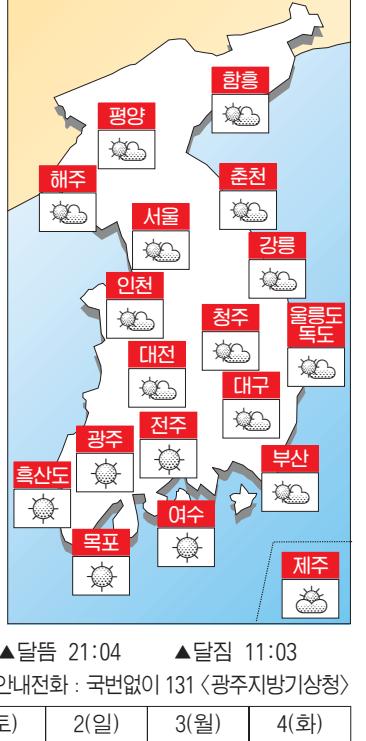
날씨

최저/최고 2/10 1/11 2/12 2/12 2/12 3/13

11월 28일

(음 10월 19일)

◇전국날씨



■ 최병민 신임 광주경찰청장

“시민을 섬기는 치안활동 펴고 엄격함으로 경찰명예 살릴 터”



“모든 지역역량을 범죄 및 사고 예방과 겸직활동에 투입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광주경찰이 만들 어갈 것입니다.”

27일 취임한 최병민(54·사진)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은 안전이 우선 뒤 경제력과 문화가 어우러져야 하는 만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어 “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군림하고 규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친절한 언행 ▲경찰관서 문턱 낮추기 ▲민원의 신속·공정 처리 ▲투명하고 깨끗한 치안행정 구현 등 ‘섬김의 치안활동’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지 2년10개월여 만에 다시 부임 신고를 하는 마음이 감격스럽지만 무겁기도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 GU VISION 2030 선포

▶일시: 2007년 11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호심관3층 소강당1

“세계를 향해 열린 교육명문대학”



광주대 김혁종 총장과 교직원·학생들이 27일 세계 속의 교육 명문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는 'GU VISION 2030' 선포식을 가진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광주대 ‘비전 2030’ 선포

세계 교육 명문대로 거듭난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개교 50주년을 맞는 2030년, 세계적인 교육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대는 27일 오후 4시 교내 호심관 소강당에서 대학발전 중·장기 비전인 'GU VISION 2030' 선포식을 가졌다. 광주대는 2010년 '광주권 최고의 교육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공별 취업모델 개발 ▲인재개발원 설치 ▲학생 해외연수 프

로그램 확대 ▲대학발전기금 300억 원 조성 ▲보건복지분야 특성화에 종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 및 재정기반 강화, 교육복지 및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2020년 ‘한국 최고의 교육 명문대학’으로 우뚝 선다는 각오다.

특히 개교 50주년인 2030년까지 연구와 교육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한층 높이고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을 강화해 ‘세계 유수의 교육 명문대학’

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광주대는 'GU VISION 2030'의 5개 대과제로 ▲교육 내실화 ▲조직 혁신 ▲재정역량 강화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 및 이미지 개선 등을 선정하고 53개 소과제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또 본부 및 단과대학 조직구조 개편,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재정비, 학생서비스센터 신설, 직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 기숙사 커뮤니티 활성화,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한 공간·시설의 첨단화 등 학생 복지와 교직원 처우 개선에 힘쓰고 일반대학원의 경쟁력 강화와 유망학과 신설 등을 통해 특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금파공고 軍 특성화고 선정

국방부 5년간 15억 지원

노트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금파공고는 이번 군 특성화고 선정을 계기로 관련 ▲군부대(기계화 학교·제51군수지원단·통신 학교·기술병과학교) ▲대학(전남 과학대학)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군 협력체계를 구축, 졸업생들의 진로를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이인수 교장은 “학생들은 군 복무와 연계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산업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23명 사시 최종 합격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3세였으며 서울대(320명)·고려대(158명)·연세대(114명)를 비롯해 전국 42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수석합격의 영예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기용(30)씨에게 돌아갔고 권주연(여·21·서울대 법학과 4학년)씨가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담배똑! 독소안녕~

광주지역 주술을 선물할 신규 판매하고 기능성차를 공동연구할 개발

과제 모사를 진행하는 MBC, YTN, TVN+ 및 자연판 집중보도

▶ 3일 출판부 본부를 찾은 홍보기자

▶ 3일 출판부 본부를 찾은 홍보기자